

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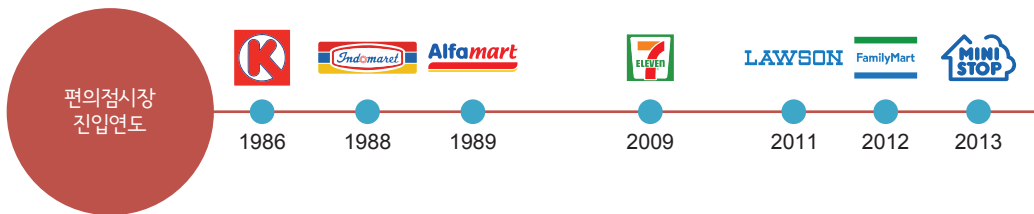
▶ 인도네시아 소비문화

- 인도네시아는 인구 세계 4위(2억6100만명)이며, 실질 구매력을 가진 25세에서 54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% 이상으로 구매력이 있는 인구층이 매우 두텁다.
- 아세안의 중산층은 2020년까지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적 유통성장의 가장 큰 동력인 중산층은 현대화된 쇼핑환경을 추구하여 인도네시아 내 현대적 유통채널 확산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. 아세안 회원국 중 소매유통이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며, 인도네시아 편의점 시장은 2015년은 8% 및 2016년은 9%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. 유통경영자협회(APRINDO)에서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및 환율, 낮은 금리기준 등에 힘입어 2017년에는 12%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.

▶ 인도네시아 미니마켓 현황

-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기업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전체 시장의 90%를 점유하고 있으며, 주로 대도시와 자바섬에 밀집되어 있다.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편의점은 Indomaret 및 Alfamart로 직영점 비율이 각각 62% 및 71%를 차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독과점법 위반 여부를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.

인도네시아 편의점 진입 타임라인



- 최근 인도네시아 편의점 시장은 외국계 및 초소형 미니마켓과 경쟁하기 위해 매장규모를 확대하고 즉석음식과 음료를 보강하여 소비력이 높은 중상류층을 겨냥하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. 자바 외곽지역 및 지방 중소도시에서 편의점 성장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며, 이러한 현대적 유통의 확산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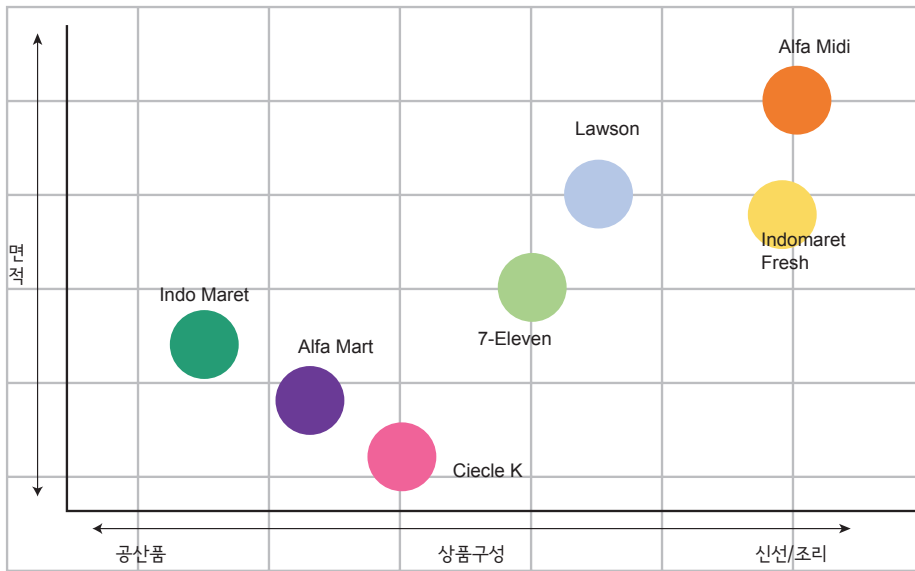
▶ 인도네시아 편의점 주요업체

- 인도마켓(Indomaret) - PT.Indomarco Prismatama
인도네시아 최대 재벌인 SALIM GROUP의 자회사이며 1988년에 설립되어 2016년 기준 총 13,099 매장을 운영 중이다. 편의점인 INDOMARET 외 즉석음식 및 음료가 보강된 INDOMARET POINT,

기존 편의점에 신선식품을 보강한 INDOMARET PLUS 및 중.상류층을 겨냥한 INDOMARET FRESH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.

- 알파마트(Alfamart) - PT.Sumber Alfaria Trijaya
1989년 설립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총 11,115 매장을 운영 중이며, 2016년도 매출은 전년대비 16.5% 증가한 56조1,100천억 루피아를 기록했다. 강력한 공급망 및 소비자 니즈에 맞춘 비즈니스 컨셉으로, 편의점 업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.
- 기타 : 인도네시아의 주요 대형마트 중 하나인 PT. HERO SUPERMARKET TBK (이하 헤로)는 이달 편의점 사업 진출을 시작하였으며, 편의점 브랜드 1호점인 ‘자이언트 마트’를 서부 자카르타에 오픈해 운영 중이다. 헤로 측은 현재 영업 중인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과는 다른 형태로 수요를 끌어 모을 것이며 소비자 반응에 따라 상품구성이 달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Ⅰ 인도네시아 편의점별 구성상품 Ⅰ



▶ 인도네시아 유통시장 관련 법규

-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였으나, 소매 유통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, 규제를 통해 외국계 기업 활동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.
- 외국계 기업은 법률적인 제약 조건으로 편의점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, 현지 상장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장 진출은 용이하나 운영권 및 최대주주 지위 확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.
 - 대통령령 2007년 111번 : 1,200㎡ 이하 슈퍼마켓 및 400㎡ 이하 편의점 부분은 국내 투자자만 가능함

- 대통령령 2007년 112번 : 매장 규모, 소유 형태, 전통 시장과의 거리를 규정함

형태	상점크기	10% 국내 자본	외국 자본
미니마켓	400㎡ 이하	○	제한
슈퍼마켓	400~5,000㎡	1,200㎡ 이하	1,200㎡ 이상
백화점	400㎡ 이상	2,000㎡ 이하	1,200㎡ 이상
도매점	5,000㎡ 이상	○	○
하이퍼마트	5,000㎡ 이상	○	○

- 또한 2015년 4월 16일부로 인도네시아 전역의 편의점에서 알코올 도수 5% 이하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되었다. 이에 따라 대형 마트를 제외한 편의점과 소규모 상점에서 알코올을 포함한 음료를 판매할 수 없어 신규진출 편의점 업체 매출하락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.

* 참고자료 :

-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
- USDA Foreign Agriculture Service Indonesia Retail Food Gain Report
- Rak Minimarket, 「POTENSI BISNIS MINIMARKET 2017」

시사점

- 인도네시아의 소매 유통부분에서 재래시장이 아직도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의점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. 경제성장, 도시화, 젊은 중산층의 증가,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을 성장 동력으로 꼽을 수 있으며 새로운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의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식품의 지속적인 진입이 필요하다.
- 현재 인도네시아 편의점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품목은 라면으로, 한국 라면은 2016년 기준 총 11백만 불이 인도네시아로 수출되었으며 대형유통시장 외 편의점 시장진입을 통해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품목으로 자리잡아 지속 성장 중에 있다.

주요내용

▶ 2019년 할랄인증 의무화 예고

- 인도네시아는 2014년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령 33호를 발표하였다. 해당 법령에 주요 내용은 2019년부터 할랄인증을 의무화 하고 기존에 민간기관(MUI)에서 실시해오던 할랄인증 업무를 정부기관(BPJPH)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.
- 법률에 적용되는 제품은 식음료뿐만 아니라 의약품, 화장품, 화학제품, 생물학 제품, 유전자 변형 제품, 그리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사용되는 물건으로 할랄인증의 범위가 확대되었다.
- 2014년 발표 당시 법안의 정식시행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, 세부 시행령은 2년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세부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.

▶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(BPJPH)

- 할랄인증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정부기관인 할랄인증청(BPJPH)은 2017년 10월 현재 신설된 상태이지만 아직 그 기능 수행은 하지 않고 있다.

할랄인증청(BPJPH) 기능

- 할랄제품보장 정책 수립 - 할랄제품보장 규정, 표준, 절차 확립 - 할랄인증 발급 및 취소 - 할랄인증 관련 공청회, 교육, 홍보	- 할랄감사기관(LPH) 인가 - 할랄감사관 등록 - 할랄감사관 양성 -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감독
---	---

• 할랄인증청(BPJPH) 할랄인증 절차


- ① 할랄인증 신청서 작성 후 할랄인증청(BPJPH)에 제출
- ② 할랄인증청(BPJPH)은 할랄감사기관(LPH)에 검사요청
- ③ 할랄감사기관(LPH) 소속 할랄감사는 검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
- ④ 할랄감사기관(LPH)은 결과를 할랄인증청(BPJPH)에 전달
- ⑤ 할랄인증청은 MUI(현 할랄인증기관)에 검사결과와 함께 윤리적 할랄성(FATWA) 여부 검토 요청
- ⑥ MUI 검토 결과 문제없을 시 BPJPH에서 할랄인증 발급

▶ 할랄관련 이슈

-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7%가 무슬림으로 식품에 할랄인증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며, 최근 한국 라면 4종에서 돼지고기 DNA 검출 이후 현지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 성분 포함 및 할랄 여부에 대해 민감해 하는 상황이다.
- 인도네시아 돼지고기 표기 관련 규정
 - 의약품, 전통약품, 식품보조제 및 식품의 라벨에 유통기한, 알코올 함유 및 특정원료 정보부착 관

련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규정(No.HK.03.1.23.06.10.5166)에 근거하여 특정원료를 함유한 의약품, 전통약품, 식품보조제, 식품은 특정원료 함유에 대한 정보 표기가 의무이다.

- 돼지원료가 함유된 의약품, 전통약품, 건강보조제는 “돼지 함유”라는 표시를 흰 바탕 위 검은색 네모 칸 안에 검은색 글씨로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, 식품은 빨간 글씨로 부착해야 한다.

MENGANDUNG BABI	MENGANDUNG BABI 
의약품, 전통약품, 건강보조제	식품

-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사용한 경우 인니 식약청의 판단에 따라 아래의 문구 또는 “돼지 함유”를 부착하여야 함에 따라 한국식품 수출확대에 큰 장애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.

Pada proses pembuatannya bersinggungan dengan bahan bersumber babi
▲ 해석 : 제조과정 중 돼지에서 나온 원료와 접촉되었음

- '17년 9월 말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라면인 S사의 매운맛라면이 MUI할랄 인증을 획득하면서 최근 실추되고 위축되었던 한국식품의 이미지와 판매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▶ 로컬 소비자 공약을 위해서는 할랄인증 필요

- 할랄인증청(BPJPB)이 할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(MUI)에서 할랄인증을 발급하게 되며 할랄인증은 권고사항이다.
- 인도네시아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할랄인증은 MUI 할랄인증만 허용이 되어 인도네시아 로컬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MUI할랄인증 취득이 마케팅측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.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(MUI)는 한국에 MUI 할랄인증 대행기관을 2곳 지정하여 해당 업체를 통해 MUI할랄인증 취득이 가능하다.

* 참고자료 :

-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령 2014년 33호
-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(MUI), 할랄인증청(BPJPB), 인도네시아 식약청(BPOM) 세미나 자료

시사점

-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령 2014년 33호에 의거 할랄인증의 의무화가 예고되었으나 인도네시아 국내외 여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할랄인증 여부 표기의 의무화로 방향이 선회될 것으로 예측된다.
-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식품은 ①할랄인증 식품, ②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, ③ 돼지성분을 포함한 식품 3가지로 분류가 될 예정이며, 법령이 시행 되더라도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이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.
- 다만,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이라는 표기를 해야 수입이 가능하고 인도네시아는 87%가 무슬림 소비자이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에서 어떤 소비층을 타겟으로 할지 자체적인 판단 필요하다.